

“삼시세끼 해남쌀로 더 건강하세요”

해남군, 해남쌀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각종 쌀 가공식품 소개해 소비확산 유도



해남군은 가격 하락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 농가에 힘이 되기 위해 공직자부터 소비촉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군은 19일 농협군지부와 함께 해남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갖고, 해남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각종 쌀 가공식품을 소개해 소비확산을 유도하는 자리를 가졌다.

캠페인에서는 군청 출근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남쌀로 만든 가래떡과 인절미를 나누고, 우리 쌀로 만든 떡, 음료수, 막걸리, 빵튀기, 부침가루 등을 전시했다.

또한 쌀 나눔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해 쌀 30포대를 관내 소외계층에게 기부하기도 했다.

해남군은 앞으로 공무원 1인 1포 이상 해남쌀 사주기 운동, 해남쌀 TV 흡수영 판매, 도시학교로 찾아가는 친환경 쌀 생산체험학습 등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전국 최대 벼 재배면적을 보유한 해남군이 앞장서 우리쌀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쌀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최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강진 황칠’, 건강식품으로 인기 고려·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으로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

강진군 황칠 상품이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주로 자라는 황칠나무는 현대인에겐 낯설지만 삼국시대부터 최고급 약재로 유명했던, 역사가 아주 오래된 나무로 안식향이라는 독특한 향을 지니고 있다.

황칠은 동의보감에도 기재되어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신기통, 설사, 구토할 때 도움을 줘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고 있다.

황칠은 세스키테르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계를 안정시키고 심리적 불안감 및 스트레스 완화, 수면장애에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나쁜 LDL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 및 동맥경화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각종 바이러스 등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탁월해 노화방지 및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강진을 학명리에 위치한 ㈜황칠코리아(대표 정현호)는 1만 평의 폐교를 매입해 재배, 생산, 가공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황칠 가공공장을



과 황칠전문 요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황칠나무 잎·슬라이스, 황칠진액, 황칠차, 황칠갈비탕 등 다양한 식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황칠코리아 정현호 대표는 “20년 이상된 황칠나무를 가장 좋은 시기에 수확하고 엄선된 원료를 사용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가족과 특별한 지인들에게 황칠로 건강을 선물해 보시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강진 황칠 관련 식품 주문 및 구입 문의는 강진 초록민음 매장(☎061-434-3737) 혹은 소림물로(http://www.gangjin.center) 하면 된다. 강진=김영일기자

‘추석 선물은 완도군이숍에서’ 할인 행사 진행

우체국 소핑몰 ‘완도군 브랜드관’ 전복·해조류 등과 함께 최대 10% 할인

완도군은 군 대표 특산물 온라인 소핑몰인 완도군이숍에서 ‘추석 선물 기획전’을 마련하고 오는 9월 9일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완도군이숍(www.wandofood.go.kr)의 ‘추석 선물 기획전’은 업체당 판매 가격 대비 5% 할인된 금액으로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완도군이숍 회원은 상품 금액 별로 최대 10%(최대 3,000원) 자동 할인이 적용된다.

기획전에서는 활 전복과 순살 전복, 전복가

공품뿐만 아니라 김, 미역, 다시마, 멸치 등으로 구성된 수산물 세트 등 약 100여 개의 다양한 완도 특산품을 만나볼 수 있다.

완도군이숍에서는 추석 선물 기획전을 SNS와 블로그, 카페 등에 공유하면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우체국 소핑몰 내 ‘완도군 브랜드관’을 개설해 9월 12일까지 전복과 해조류 등을 최대 10% 할인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완도 전복은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데, 타우린과 아르기닌 함량이 풍부해 원기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추석에는 대북(6~10미)의 경우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주문이 쇄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청정바다 완도산 수산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면서 “추석 명절에 특산품이 많이 소비되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소나무 숲 지킨다”...병해충 집중방제

보호수·경관보호구역·우드랜드 등 관내 수목 병해충 방제에 총력

장흥군은 최근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인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병해충 집중방제에 나섰다

군은 지난 6월 보호수 및 경관보호구역, 우드랜드의 방제를 실시하고, 최근 소나무에 발생한 소나무가루깍지벌레의 지상방제를 실시했다.

8월 말부터는 3차 산림병해충 지상방제에 들어간다.

우선 방제작업을 통해 소나무가루깍지벌레를 완전히 박멸할 계획이다.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가로수 15만 그루와 보호수 144그루, 10개 읍·면 소공원을 대상으로 살충제와 영양제를 혼합하여 살포를 하고 진딧물과 응애류와 같은 일반병해충으로부터 관내의 수목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병해충 예방·방제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 병해충 조기 발견과 함께 적기 방제에 힘을 써서 수목생육 환경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행복전남 진도문화지소, 기획프로그램 ‘선상에서 즐기는 문화예술체험’

행복전남 진도문화지소(소장 정명돈)의 주관으로 최근 ‘선상에서 즐기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사전 예약한 진도, 광양, 서울 등의 참여자 33명과 함께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 프로그램 운영은 진도의 아름다운 해상 국립공원 조도의 섬 풍경을 감상하며 진도문화예술인(화가, 국악인)들과 함께 보는것만이 아닌 전통예술(진도아리랑, 수목제현)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상체험 이후에는 진도 윤림산방과 미술관도 관람했다.

참여자들은 “오직 진도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문화와 섬 풍경을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1년 개소한 행복전남 진도문화지소는 ‘민속문화예술특구 진도의 우수한 전통 문화

예술을 체험과 교육을 통해 전문 예술인을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진도문화지소.com)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진도문화지소 대표전화 061-543-9078로 연락하면 된다. 진도=조성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